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618

2010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타자들의 에코토피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전공

최 지 명

타자들의 에코토피아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

The Ecotopia of Others : A study on 『A Small Ball Shot Up by A Dwarf』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전공

최 지 명

타자들의 에코토피아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전공

최 지 명

최지명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 문 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형 중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2.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Ⅱ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타자, 근대성

1. 자연, 여성성, 그리고 여성원리

2. 근대의 폭력성과 생태위기

Ⅲ 파괴된 자연과 불구적 생명 모티프 분석

1. 파괴된 자연, 성, 인간성

2. 불구적 신체와 생명

Ⅳ 타자들이 꿈꾸는 에코토피아

1. 자급생존의 생태공동체를 꿈꾸는 타자들

2. 생명회복과 치유의 공간

Ⅴ 결론

참고문헌

The Ecotopia of Others

A Study on 「A Small Ball Shot Up by a Dwarf」

Choe Ji Myeong
Advisor : Prof. Kim Hyeong 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ho Se-Hui's literary work, 《A Small Ball Shot Up By A Dwarf》 represents miseries of people in the process of Korea's drive for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The class confrontation and estrangement depicted in this work can be read in the view of ecology because it reveals environmental disruption inevitably generated by highly industrialized society.

This study considers Cho Se-Hui's 《A Small Ball Shot Up By A Dwarf》 in an ecological world-view. It aims to analyze how people in the work lessen the antagonism and regain community spirit from a perspective of ecofeminism.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point out the Korean distorted industrialization caused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show that anti-ecological thinking at that time destructed nature and humanity bringing about hierarchy in the society. It also studies different definitions about 'nature' and 'woman' between feminism and ecofeminism.

The fourth and fifth chapter consider the way that the characters recognized the reality divided by nature and human, subject and object, the one who rules and who is ruled. It also discuss about the signs -terminated spaces, disabled, nature, etc- in this work, and find out the writer's ecological representation.

Finally, it studies whether the ideal of characters willing to challenge their realities and the view of the ecofeminism pursuing sustainability coincide.

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은 조세희가 1965년 단편 「돗대없는 將船」으로 등단한 이후 10년 만에 연작으로 발표한 단편을 모아 출간한 작품이다. 『난쏘공』은 현재 200쇄를 넘길 만큼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독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왔고,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화 시기 문학으로 규정돼 연구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난쏘공』은 70년대에 급격하게 자리잡은 산업사회, '힘'제일주의 풍조의 그늘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런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일러주는 작품[2]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사회상을 그려낸 리얼리즘 소설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희의 『난쏘공』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계층 간의 대립을 소재로 한 리얼리즘 측면에서의 연구[3]와 환상성을 보여주는 효과나 문체, 기법[4] 등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리얼리즘 측면에서의 『난쏘공』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는 "70년대의 사회변혁에 연관하여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직면하였던 생존의 전형적인 상황을 끈덕지게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내포하는 인간적·사회적 의미를 질서정연한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고 평가한 김종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우찬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이 땅에서 거의 최초로 자유와 더

---

1)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성과 힘, 2000) 은 본문에서 이하 『난쏘공』으로, 연작소설 가운데 네 번째 작품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쏘공」으로 표기한다.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모두 이 책에 따르고 앞으로 인용 쪽수는 본문 안에 직접 적기로 한다.
2) 조남현, 「70년대 소설의 몇 갈래」, 『한국현대문학사』, 1989, p.461
3) 김종철, 「산업화와 문학」, 『창작과 비평』, 봄, 1980, p.87
우찬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리얼리티 효과」,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1집』, 2003, 겨울, p.178
강상대, 『문학과 비평의 사유』,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6, p.180
4)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 『문학과 지성』, 봄, 1982, p.212
신명직, 『불가능한 전복에의 꿈 - <난쏘공>의 환상성 연구』, 시인사, 2002, p.11

불어 평등의 이념형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면서, 이후 줄곧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강상대는 "『난쏘공』은 70년대적 삶의 부정성에 대한 작가로서의 고뇌가 70년대의 사회와 삶을 향한 비판과 극복의 언어로 구조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체, 기법 분석과 관련해서 김병익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순수한 공백이 독자의 연상과 감동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스타카토 문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신명직은 환상성이 지닌 현실 전복적인 성격으로 리얼리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난쏘공』이 지닌 1970년대적 리얼리티와 그 극복방법으로서의 환상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경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난쏘공』은 일반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모순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난쏘공』이 파괴된 자연과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타자들을 등장시킨 최초의 생태주의 소설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생태의식의 환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곧 생태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난쏘공』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논의로는 김욱동, 김정숙, 차봉준 등을 들 수 있다.

김욱동은 "생태 위기 시대에 소설 장르가 생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일에 한 몫을 해야 한다."[5]며,『난쏘공』을 생태비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숙[6]은 "기존의 대립적 세계관, 즉 주체와 객체, 객체와 집단, 주관과 객관, 정신과 육체 등의 이항대립은 안과 밖의 대립을 풀어야 하며, 난장이가 염원했던 '사랑'으로 화해"되는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전이된 텍스트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난쏘공』이 70년대에 간과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5) 김욱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p.138
6) 김정숙, 「텍스트 새롭게 읽기 : 대립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문예시학』, 1933, p.41

생태학적 위기에 관해 부단히 주위를 환기시킴으로써 공해로 인한 자연파괴와 아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대 공업사회의 여러 모순을 우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생태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차봉준은 "조세희의 『난쏘공』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서구 자본주의가 초래한 반생태적 문제점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결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상"이며, "'지배속성'에 기인한 계층간의 대립과 소외의 극대화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은 생태 사회학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텍스트 해석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7]

2.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생태학적 입장에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들은 『난쏘공』에 대한 고정된 분석에서 탈피해 환경오염, 자연파괴 문제나 작품 전반의 생태의식을 다루는 등의 새로운 텍스트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난쏘공』은 파괴된 자연과 피억압적 위치의 타자들을 등장시킨 최초의 생태소설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통해 포괄적인 '생태'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좀 더 확장된 논의와 구체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야 비로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인식했[8]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난쏘공』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에 대한 지배가 성, 인종, 계급에 대한 억압·지배와 일치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 작품분석은 파괴된 자연, 소외된 인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대립 등의 사회의식들을 생태학적 관점

7) 차봉준, 「조세희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2007
8) 차봉준, 「소설의 심미성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중인문과학연구회』, 2008, p.96

으로 접근하는데 구체성을 획득하게 한다. 특히 텍스트의 기조基調가 되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반생태적, 가부장적,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배경이 된다. 『난쏘공』이 지닌 생태학적 담론은 에코페미니즘적 분석을 통해 대립적 세계관을 극복하게 하고, 공동체 화합을 중시하는 일원론적 세계관으로의 인식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일반 페미니즘 이론들이 성적 평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은 물론 인종, 자연까지도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이론이다. 특히 자연의 억압과 여성의 억압이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자연'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9] 본고에서는 개발과 산업화, 고도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1970년대의 한국사회가 생태위기를 불러왔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반생태적 인식이 자연 뿐 아니라 인간성 파괴와 계급간의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살펴보면서 자연과 여성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에코페미니즘에서 정의하는 '여성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 주체와 타자[10], 지배와 피지배로 이분화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현실인식을 분석하고,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파괴된 공간, 불구적 신체, 자연물 등의 표상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생태학적 인식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분화된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군이 그리는 이상세계가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지닌 세계관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9)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p.327

10) 시몬느 보부아르는 어떠한 주제도 자기 자신을 '타자'로 규정하는 '타자가 '주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체'로 확립하는 '주체'에 의하여 '타자'는 '타자'로서 설정된다고 하였다. 보부아르가 주장하는 타자는 자기 자신을 주체이자 본질로 주장하는 남자와 대립되는 존재인 여자를 곧 타자로 보았다.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한정지어지고 구별된다는 것이다. 타자를 남성주체와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여성'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성, 계급, 인종 등 피억압적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생명체를 '타자'라고 본다. ;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pp.54-55

Ⅱ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타자, 근대성

1. 자연, 여성성, 그리고 여성원리

기존의 페미니즘이 남녀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인종, 계급, 문화 등의 차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분법적 세계관, 즉 서양/동양, 인간/자연, 여성/남성, 이성애자/동성애자로 구분해버리는 이원론적 현실관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는 시작된다.

에코페미니즘[11]은 여성이 자연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남성이 문화, 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서구식 사고가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문제 삼는다. 서구 이분법적 사고에서 남성, 이성, 문화와 대립된 여성은 자연과 함께 열등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상대적인 것에 대한 열등화는 억압과 지배에 대한 근거로써 이용된다. 성, 계급, 인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을 때 열등한 부분, 즉 여성, 노동자, 유색인은 파괴하기 쉬운 자연과 함께 억압당하고 지배당해야 마땅할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자연과 여성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이른바 '여성원리'를 내세우는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여성과 자연의 동일한 특성, 즉 여성의 임신과 양육과 같은 특징들이 자연의 습성과 유사하다고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자연 친화적이라든지, 그로인해 여성성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자연을 신성시하는 경향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11) 프랑스와 도본느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 이론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급진적/문화적 에코페미니즘과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이 여성지배와 자연착취의 지배논리로 사용되어 온 것을 폭로하려하는 유물론적/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은 '자연에 대한 억압이 곧 여성 억압'이라는 인식과 전통적으로 자연은 여성, 특히 여성의 육체와 동일시되어 차별 받아 왔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각 이론상의 구체적인 분류가 아닌 에코페미니즘 일반의 논리를 취하고자 한다.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제43권』, 2001, p.43

그것이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무조건적으로 자연과 여성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과학 기술 개발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좌절되면서 등장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면 평등이 성립된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논리로 인해 페미니즘의 성격 자체가 여성의 영역에서도 남성이 주도해 왔던 이성의 영역을 지향하는, 즉 여성/남성, 자연/문명이라는 이항대립을 인정해버리는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이항대립을 부정한다. 남성과 여성 자체의 분리나 남성 중심 구조에서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 인종. 계급에 대한 억압 뿐 아니라 자연의 억압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연까지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경계할 것을 주장한다.

이원론적 사고에서 바라 본 자연은 '모성의 자연'과 '혼돈의 자연'의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진다.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모성의 자연은 베풀고 돌보는 선한 모성성을 띤 채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와 기계주의 인식론과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파괴되고 만다. 다른 모습인 '혼돈의 자연'은 무질서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이성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즉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억압과 수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뿐 과학적 합리주의와 이성,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풍요로운 원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구의 근대적 사고가 자리잡은 사회 속에서 자연은 인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성과 동일시되어 이성, 문명, 남성의 정복 대상이 된다. 서구식 사고, 즉 과학적 합리주의에 의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 영역은 합리성이나 문화의 척도가 부족한 인간성의 형태로 해석[12]된다. 여성, 노동자, 비서구인으로 분류되는 열등화된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지배가 곧 자연에 대한 지배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지배가 곧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발 플럼우드와 미즈, 쉬바를 들 수 있다. 플럼우드는 여성 억압과 자

12) 김임미,「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4, p.32

연 억압의 원인이 서구 철학의 이성/자연의 이원론적 사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즈, 쉬바는 그 원인을 자연 착취에 근거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에서 찾고 있다. 발 플럼우드는 이성과 자연이라는 이항대립을 이해해야 생태론과 페미니즘이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인종, 계급, 여성, 자연에 대한 4억압의 공통된 원인을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에서 찾는다.[13] 이성/자연의 이항대립에서 언제나 우세한 쪽은 이성과 연관되어 있고, 열등한 쪽은 자연으로, 중심에 있는 이성적인 주체는 대조와 배제에 의하여 타자를 주변화하고 지배하는 지배자master가 된다고 말한다.[14] 지배자는 여성, 인종, 계급과 자연을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사회를 구성한다. 그는 자연을 자주성이 없는 나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서구식 자연관과는 달리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자연이 무질서하고 타락한 것으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즈와 시바가 규정하는 에코 페미니즘의 근본적 전제 역시 여성과 자연간의 동일성이다. 마리아 미즈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 자연은 백인 남성에 의해 명백히 외부라 규정된 자연, 즉 식민지이며 후진적이고 이국적이며 멀고 위험하다고 정의된 자연,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자연[15]이었다고 말한다. 나약한 존재로서의 자연은 개발논리에 쉽게 노출되며, 자연과 더불어 하급주체인 여성, 빈곤층, 제3세계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즈와 시바는 개발에 희생된 사람들은 개발 모델이 진보와 해방을 가져다주기는 고사하고, 자연과 자연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인간 집단 즉 여성, 제3세계 국민, 빈곤층의 생존 기반을 파괴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착취적이며, 비식민적이고, 비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을 체험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자급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자급적 관점은 착취, 지배, 파괴, 폭력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이자 나와 다른 사람,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우리 종과 자연의 다

13) 이귀우,「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새한영어영문학』제43권, p.44
14)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같은 책, p.336
15) 마리아 미스, 반다나 쉬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외 역 , 창작과비평, p.171

른 종간의 균형관계, 공생관계를 의미한다.[16] 미즈와 쉬바는 자급적 관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관계성'을 들고 있다. 자연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변화된 관계가 요구된다. 여러 가지 분업 즉 성별분업, 육체노동/정신노동, 도시노동/농촌노동 등의 관계변화 뿐 아니라 화폐나 상품의 관계를 상호성, 연대, 신뢰, 나눔과 보살핌, 개인에 대한 존중과 '전체'에 대한 책임과 같은 원칙들로 대체하는 것이 자급적 관점에서 본 관계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급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부장적 관계, 불평등, 소외,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들은 환경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도구주의적인 이분법적 세계관 대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역할은 없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환경 보존을 위한 작업들을 '실제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코페미니즘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을 보는 그것과 동일하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여성성 개념은 비가부장제적, 비폭력적, 비성차별적 성격을 갖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성은 남성성, 이성주의가 배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다. 이원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닌,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자연, 인종, 계급, 문화를 넘어서는 '여성 원리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 권력 체계들이 자연과 한 세트로 묶어서 이미지화한 '여성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에코페미니즘의 대안원리로서의 '여성성' 혹은 여성적 원리로 세상을 다시 짜는 것(reweaving)을 지향한다.[17]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유사성을 근대적 세계관의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그 본질이 고착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항의식과 연대를 가능[18]하게 한다.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과 자연

16) 마리아 미스, 반다나 쉬바, 같은 책, pp.391-392
17) 이윤숙, 「다시 짜는 세상 -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에코페미니즘의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3, p.5

이 갖는 공통적인 경험은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다.

2. 근대의 폭력성과 생태위기

환경파괴와 인종차별, 계급갈등 등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은 '근대성'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져도 무방할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 이라는 근사한 모습의 이면에 피억압적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고압적 모습을 지닌 근대성은 사회의 겉모습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양분해버리는, 즉 이원론적 세계를 만들어 냈다. 에코페미니즘에서 부정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우리 현실에 본격적으로 파고든 시점은 역시 1960년대부터 산업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원화된 인식의 작동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인식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개발은 7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서구 산업사회에서도 그랬듯이 70년대 한국은 기술의 급진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경험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고속의 압축적인 근대화를 일으켰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한국 사회 역시 개발주의의 화려한 외모의 뒤에 존재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는 없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소외와 좌절이라는 내적인 체험을 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전통과 공동체의 붕괴,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 불평등과 부의 편재를 경험[19]해야 했다. 더불어서 국가가 주도한 개발독재체제는 국민의 삶 곳곳에 개입해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가부장체제의 국가로서의

18) 김임미, 같은 글, p.32
19) 이정옥,「산업자본주의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

전형을 보여주었다. 국가 가부장제는 국가와 가족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약화된 사회에서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낸 국가 주도 개발주의는 엄청난 폭력성을 뒤따르게 했고, 이는 인간에 대한 착취 뿐 아니라 생태에 대한 파괴로도 이어졌다. 개발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조건적 경제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절대 선으로 여기는 태도"[20] 이다. 절대 선으로서의 근대성은 합리주의와 과학적 객관주의라는 고급스러운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종속과 착취를 수반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들을 취한 자본가들의 욕심은 한국에 유입된 자본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더 큰 폐해들을 낳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모를 꾀하였고, 이 사회가 최소의 비용을 지불해 최대의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이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별 기업과 경제의 분화된 부문들은 사적 소유이든 국가소유이든 자체의 효율성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모든 기업과 모든 부분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극대화되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이윤의 극대화라는 척도로만 효율성을 측정한다.[21]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지배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빈곤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부의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도 경제적 교환가치로 환원해 버리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효율적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만들어 내는 질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며, 이 때문에 약자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20) 홍성태,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2007
21)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같은 책, p.40

것이다. 인간에 대한 지배, 지배에 대한 지배가 순환적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황폐화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자연을 약자, 여성인 양 손쉽게 다루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 결과인 생태위기 조차 이성과 합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고 접근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생태와 환경파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도성장에 따른 근대화,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 개발로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의 자본독점은 인간성 상실, 물질만능주의 생활태도, 빈부의 격차, 자연파괴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러한 불구적 사회구조는 개발주의가 불러온 이분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은 완전하지 않은 불구적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Ⅲ. 파괴된 자연과 불구적 생명 모티프 분석

1. 파괴된 자연 · 성 · 인간성

1960년대 한국 산업사회의 파괴성과 그로 인해 생명 위기를 겪게 되는 타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난쏘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난장이네 가족의 터전인 낙원구 행복동은 동네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빈민층들의 유일한 터전이다. 무허가 판자촌이었지만 난장이 가족에게는 장독대 시멘트 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씌어진 낙서처럼 추억의 장소이자 다시 돌아갔을 때 남아있어야 할 고향의 대체물이다. 그러나 집은 개발자본주의와 기계의 파괴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만다. 집의 해체는 단순하게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백 년이나 걸려 지은 집을 허물어버린다는 것은 오백년 동안 선조들이 쌓아 올린 공동체를 무너뜨

린다는 것과 같은 말[22]로 해석될 수 있다.

'철거계고장'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을 터전으로 삼아왔던 타자들의 집을 허물어 그들의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상징물이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30만원이 없어 새 터전을 찾아 떠나는 재개발 지구의 철거민들에게 '철거계고장'은 한국식 개발주의가 가져온 폭력성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본격화된 경제개발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변화시켰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했고, 이들은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주거지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철거'가 자행되어 그들은 집을 잃게 된다. 철거는 '합법적'이라는 이름을 갖는 폭력이다. 개발주의가 우리 삶에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고 사회 지탱의 강력한 힘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생명파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이 내세우는 성장 중심주의는 기술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부류들은 모두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로 취급해 버린다. 무허가 주택에 대한 철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입주권을 17만원 받고 팔아도 <분양아파트 58만원, 임대아파트 30만원>의 현실에서 살만한 집으로 이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행복동 사람들에게 쇳덩이가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국가의 개발정책이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개발, 기계, 문명의 폭력성은 꼽추와 앉은뱅이 집이 철거되는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루나무 옆 털여뀌풀 위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서 하늘만 쳐다보았>던 꼽추와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이 다가오자 코스모스가 한창인 길 옆으로 비켜 앉>은 앉은뱅이의 모습에서 개발·산업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가 드러난다. 인간의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였던 자연은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타자들의 삶의 의지와 인간성 역시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종자로 남겨두었던 옥수수를 마당가에서 따>낸 꼽추네 가족들의 행위 속에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집'이 파괴되면서 돌아가야 할 곳,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파악할

22) 김종성, 「韓國 現代小說의 生態意識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60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개발 폭력으로 인해 회복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개발의 희생자들이 생존 기반 파괴 현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개발의 폭력성으로부터 자연의 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지는 옥수수 종자를 새로 옮겨 심을 새로운 공간, 더 이상은 파괴되지 않을 안락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 낸다.

안식의 대상이었던 집의 파괴는 타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공업도시 '은강'으로의 이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들은 개발 폭력의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 공장 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황갈색의 폐수·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 폐수는 다른 공장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강 내항은 썩은 바다로 괴어 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기계도시」, pp. 185-186)

은강은 '갑갑하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도시다. 공장의 매연과 폐수 때문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은강시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치안악화 등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 어른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어른들도 악취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이 아프고 목이 따가웠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 나왔다. 시가지와 주거지에 안개가 내리고,

가로등은 보이지 않았다. 대혼잡이 일어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기계도시」, p.186)

공장주변의 생물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는 했다. 은강 공작창과 합성 고무 공장 앞을 지날 때 나는 땅만 보고 걸었다. 공장을 끼고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널 때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시커먼 폐수·폐유가 그냥 흘렀다.(「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p.215)

옥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였다. 더러운 바다였다. 은강 내항은 언제나 썩은 바다로 괴어 있었다. 항만관리청 소속의 작은 청소선 하나가 항내의 부유물을 제거했다. 그때 산화철 생산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내가 앉아 있는 옥상을 지나갔다. 나는 그 가스 속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몸의 신경을 진정시켰다.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p.203)

『난쏘공』에서는 '1차적 파괴'를 그리고 있는 행복동과는 또 다른 모습의 파괴가 은강시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정부의 합법적 정책이었던 '철거'라는 방식을 통한 직접적인 파괴가 아닌, 산업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파괴성과 부딪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적 파괴'를 경험하게 된 은강시는 산업화의 산물로 생성된 유독가스, 폐수, 오염된 땅이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생명에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다시 피억압적 존재인 '타자'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즉 작품 속에서 적나라하게 제시된 파괴된 터전, 은강시의 모습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사회적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개발이란 모든 이들에게 복지와 풍요를 주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가 실현되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발은 환경파괴와 빈곤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넣고 있었다. (「난쏘공」, p. 126)

개발로 인해 자연과 안식처의 파괴를 경험한 타자들은 영희와 그를 닮은 '팬지꽃'에 대한 추억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영수와 영호는 모두 영희를 팬지꽃과 동일시한다. 영호는 집이 철거된 뒤 지섭과 철거인들 간의 몸싸움 때문에 먼지와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햇살을 느끼고 꿈을 꾼다. 꿈속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예쁘고 순수한 존재인 '팬지꽃과 영희'를 보게 된다. 영수 역시 팬지꽃을 머리에 꼽고 기타를 치는, 눈물이 많았던 영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꿈속에 등장한 영희는 팬지꽃을 공장 폐수 속에 던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의 폭력성 앞에서 더 이상 지켜질 순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희가 공장 폐수 속에 팬지꽃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소녀로서의 꿈과 이상을 송

두리째 버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3] 또한 자신이 좋아하던 팬지꽃을 폐수 속에 던지는 행위는 행복동에서의 순수했던 삶은 막을 내리고 난장이일가가 은강시의 환경오염과 맞닥뜨리게 됨을 상징하기도 한다. 영수와 영호의 기억에서 영희는 항상 기타를 친다. 팬지꽃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하는 영희를 통해 개발 이전의 행복동이 가난하지만 희망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면은 재개발 사업이 주는 파괴성과 대비를 이루면서 환상적으로 그려진다. 영희의 기타와 팬지꽃은 행복동 사람들의 꿈이자 유토피아이며 순수하고 나약하지만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공장폐수에 집어 던져진 팬지꽃

23) 김욱동, 같은 책, 1998, p. 169

은 꿈과 이상이 꺾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로 인해 인간의 삶의 터전이 열악한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를 들고 집을 나간 영희를 통해 성을 교환가치로 보는 현실에 의해 성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쏘공』에서 지배계급의 신체는 성적 쾌락의 도구적 가치이자 교환의 가치이다. 작품 속에서 성은 타락과 파괴의 의미에 가까우며, 생산이 아닌 교환의 의미로 전락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다.[24] 뤼스 이리가라이[25]는 여성의 몸이 상품으로 교환됨을 지적한다. 여성은 사용 가치(자연)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에게 부과된 교환가치로서의 역할 때문에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같다는 것이다. 남성 주체 사이에서 여성의 몸이 교환될 때의 문제는 여성의 값이 여성 자신의 고유한 형태, 그들 자신의 몸, 언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교환 욕구를 반영하는 데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이 교환될 때 그 자체의 가치가 문제되지 않고 값으로 환원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므로 여성의 몸은 물화되어 다루어진다. 성을 교환가치로 보는 관점은 산업 사회의 개발주의의 논리와 만나게 되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작품 속에서는 특히 지배계층의 2세들이 부도덕한 수단을 통해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인물들로 등장하게 된다. 영희의 순결을 빼앗은 부동산 업자나 윤호, 그가 <작은 악마>라고 부르는 인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여자아이들과 쉽게 성관계를 갖고 음란물을 보며, 술을 마시고 솔벤트(환각제)와 마약을 하는 부유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인규는 예비고사 때도 부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를 만큼 부당이익을 취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들 윗세대와 닮아 있다. 윤호에게 성상대를 소개한 대가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요청하는 그는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명희의 가슴을 만진 피지배계층 영수와 성에 대한 인식마저도 다르게 보이고 있다. 어린 여자 아이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지배계급의 남성에게 성은

24) 이청,「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불구적 신체 표상 연구」,『우리어문연구 제27집』, 2006, p.194
25)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같은 책, p. 184

단지 소비하는 것이고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산업자본주의가 내세우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가치는 부유한 국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끌어안는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과 부에 대한 편재는 위계 서열 관계를 가져왔고, 부를 획득하지 못한 계층에 대한 배제는 그들을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배제된 계층은 작품 속에서 '난장이' 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상징물이 바로 '난장이의 도구'이다. 난장이가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구, 즉 절단기, 멍키 스페너, 렌치, 드라이버, 해머, 수도꼭지, 펌프 종지굽, 크고 작은 나사, T자관, U자관, 그리고 줄톱 등은 '수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산업화사회에서는 이미 낙후되고 후퇴한 도구일 뿐이다. 난장이의 생산도구들은 산업화시대의 기치인 효율성과 거리를 두는 것들이다. <난장이를 닮아 있는> 이 도구들은 <난장이가 잠잘 시간에는 벽돌 공장의 굴뚝 밑에 놓여 숨을 죽일>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도구들 역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은강 생활 초기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아버지의 키는 오십 센티미터밖에 안 되어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누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놋수저를 아버지를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놋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놋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을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놋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놋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난장이 마을 릴리푸트읍」 p. 196)

난장이의 수리 도구들은 영수의 꿈속에서 '놋수저'로 형상화되어 등장한다. 난장이는 산업화 이전의 생산양식으로서의 도구는 산업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퇴보적 기술이자 하급기술일 뿐이다. 그의 도구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가 아니다. 진보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급주체로서의 운명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극적 운명이 아들에게까지 유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꼭지만을 고쳐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난장이가 펌프집 사나이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상황을 통해서도 개발, 자본, 효율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산업화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도 말하고 있듯이 난장이 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발자본주의 사회는 수도꼭지 하나를 교체하는 것 보다 우물을 파고 자가 수도를 설치해야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사회다.

>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았다. 난장이의 아들에게 이것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다. 콘베어를 이용한 연속작업이 나를 몰아붙였다. 기계가 작업 속도를 결정했다.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p. 202)

난장이의 도구와는 대조적으로 은강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개발사회에서 표방하는 효율성, 합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상이다. 영화 <모던타임즈>의 찰리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무의미한 '나사조이기'에 열중했던 것처럼 난장이의 아들 세대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산업화 공간에서 공장 게시판에 걸린 계획표대로 움직인다. 산업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장 안에서는 더 많은 물질적 소비와 물량적 생산만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계획표만이 정당성을 인정받기[26]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인간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는 공장의 폭력성은 조는 공원의 팔을 '옷핀'으로 찌르는 장면에

26) 주인, 「조세희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01, p.30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섭씨 삼십구 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영희가 조금 졸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옷핀이 그의 팔을 찔러댄다. 팔에서 피가 배어 나와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공장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반장의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식사시간까지 쫓기며 일하는 일상을 반복해야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인간생활을 가져온다.

> 노동자1 : "저희들은 돌아가는 기계를 더욱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안에서 하는 일과 생계비와 임금을 생각했습니다. 부공장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희는 미개 사회에 사는 미개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계를 좀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p.225)

은강 공장의 관리 시스템은 테일러리즘에 입각한 것으로, 이는 인간과 도구 혹은 기계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결합시켜 노동으로부터 최대의 효율을 얻어내는가를 연구하는 과학적 관리기법을 의미한다.[27] 산업사회에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노동자들이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기업(공장)의 이윤의 극대화하는 대신에 인간 소외를 현상을 낳는다. 이는 "개별 기업과 경제의 분화된 부문들은 사적 소유이든 국가소유이든 자체의 효율성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모든 기업과 모든 부분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극대화되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이윤의 극대화라는 척도로만 효율성을 측정한다."[28]는 미즈와 시바의 주장과 맞닿는다. 공장의 비인간적인 시스템과 이윤추구, 목표달성에만 집착하는 사용자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점점 기계화되고 육체적, 정신적 황폐화를 경험하게 된다. 조세희는 열악한

---

27) 김용학, 「<모던 타임즈>에 나타난 채플린의 사회학」, 『연세』, 1991, 여름, p.143
28)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 같은 책, p.40

노동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명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의 묘사를 통해 공업단지에서 쏟아내는 폐수와 매연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은강의 생태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9]

2. 불구적 신체와 생명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급속도로 겪으면서 무수한 부작용들을 만들어 냈다. 산업사회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인간군상을 조세희는 작품 속에서 '난장이'와 '꼽추', '앉은뱅이', '장님' 등 병들고 불구적인 신체를 통해 보여준다.『난쏘공』은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가학성이 신체 혹은 정신적인 불구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난장이인 아버지 '김불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이 명확한 공간이다. 그는 키 1백 17센티미터에 몸무게는 32킬로그램의 신체적 불구를 지니고 있는, 정상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는 모두가 '정상'이라고 칭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는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기도 했다. 난장이가 평생 해 온 일은 채권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다. 그가 신체적 불구와 더불어 사회적 불구자가 된 이유는 '죽은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난장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죽은 땅'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죽은 땅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자 인정이 메마른 땅이고, 본질적인 가치나 효용가치 보다는 교환가치나 상품가치가 판치는 세상을 말한다.[30]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생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적도, 법을 어긴 적도, 기도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성실한 삶을 살아가

29) 김종성, 같은 글, p.53
30) 김욱동, 같은 책, p. 172

는 사람들이 투자한 성실도에 비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순이 벌어진다. 제임스 오코너[31]는 세계의 자본주의는 팽창하기 위해 노동력을 대거 착취하고 불평등을 확대해야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비용을 밖으로 떠넘기며 생태계의 파괴를 더욱 조장한다고 말했다. 생태파괴의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특히 노동자, 억압받는 소수, 여성 그리고 빈곤층이다. 죽은 땅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난장이는 그의 자식 세대에게 그 불구적 유전인자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다.

> 나는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만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그들 시대의 성격을 가졌다. 나의 몸은 아버지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어릿광대로 눈을 감을 것이다. (「난쏘공」, p.115)

난장이의 아들인 영호가 <이미 첫 번째 싸움에서 져버렸다>면서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없음을 단언한 것은 선천적으로 지위, 가정배경, 능력을 타고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이다. 노력만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하층민들에게 있어 단지 교과서 논리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계급이 이원화된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항상 '패배자, 낙오자'이다.

난장이는 모순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몸부림쳐봐도 회복될 수 없는, 정상의 범주에 들어설 수 없는 사회적 불구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주의의 폭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 정성적 성장이 불가능한 존재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신애의 이야기에서도 '난장이'가 등장한다. 신애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난장이에 비유한다. 가족의 대화가 단절된 것에 초조해하고, 노동에 대한 그

---

31) 제임스 오코너,「국제적 상호의존성과 생태학적 사회주의」,『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1990, pp.228-230

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하는 사회의 모순을 경험하며 부당함을 느끼는 중산층 여성이다. 신애는 작품 속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난장이 가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그보다 나은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계층 안에서 그 역시 위화감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신애는 회사원 남편을 두고 있는 서민가정의 전업주부다.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 보내며 언제나 불안, 회의, 피로에 싸여 <어제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는 신문만 읽는> 남편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딸, <그 바르고 너무나 옳은 그 생각들> 로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좌절하게 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그의 가족이다. 신애가 보는 그의 가족은 현재 <각기 다른 말>을 쓰고 있고, 딸이 보는 신애는 <캄캄한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다. 그의 앞집과 뒷집의 사람들은 신애와 같은 중산층이지만 <언제나 풍성>하다. 딸이 처녀의 놈으로 임신을 해 자살시도를 해도, 공무원인 남편이 부정을 저질러도 항상 새로 산 TV를 켜 놓고 연속극을 볼 뿐이다. 신애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정상'이 아님을 느끼며, 허위의식과 속물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같은 계층의 여성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신애는 인공조명을 받고 있는 닭장 속의 닭들을 생각했다. 달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육사들이 조명 장치를 해 놓은 사진을 어디에선가 보았었다. 닭장 속의 닭들이 겪는 끔찍한 시련을 난장이도, 저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알을 낳는 닭과는 달리 난장이와 자기는, 생리적인 리듬을 흐트려 놓고 고통을 줄 때 거기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병리 증상을 일으키게 될까하는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칼날」, p.56)

가족간의 대화의 단절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부정이 판치는 사회 모순을 경험하며 분노와 거리감을 느꼈던 신애는 난장이에게서 연민을 느끼게 되고,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신애 역시 난장이일가

와 마찬가지로 불구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순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이 있었지만 현재는 신문만 보는 남편과 병을 얻은 동생, 변절해 버린 동생의 친구를 보면서, 개발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인공사육닭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꼽추와 앉은뱅이 역시 난장이와 같은 신체불구자이다. 그들은 산업사회 속에서 생떼 같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의 상징이다. 난장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변형된 신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 정상적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신체적 불구로 인해 노력으로 인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이는 성장과 개발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이다. 조르지오 아감벤[32]은 국가 권력의 보호에서 배제된 존재를 '호모 사케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국가 주권의 역설로 인해 나타나는 파생물로 버려진 존재이자 벌거벗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호모 사케르는 법정의 영역 즉 주권국가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법에 따른 절차로서의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환원되고 이들의 생명을 없앤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33] 그 후 벌거벗은 생명에 해당되는 타자들은 '합법적'이라는 이름을 갖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꼽추와 앉은뱅이는 가난했지만 보금자리였던 집을 국가폭력에 의해 상실하는 존재이다.

> 은강에 유독 장님이 많은 까닭을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 중에 장님이 많다는 사실을 은강 사람들은 몰랐다. 그래서 은강 사람들 모두가 장님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 나는 장님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눈을 갖는 일이었다. (중략) 그는 주물 공장에서 일하다 한쪽 눈을 잃었다. 그는 삼십 년 동안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아왔다.

32)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출판사, 2008, pp. 38-48
33)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제24권』, 2008, p.39

(「클라인씨의 병」, p. 236)

장님 노인은 난장이, 꼽추와 앉은뱅이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불구를 가진 것이 아니다. 삼십년 동안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는 근로재해로 인해 한 쪽 눈을 잃었다. 노인은 그의 생활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에서 겪게 되는 직업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공장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켜왔다. 애꾸눈 노인 역시 개발주의가 만들어낸 피해자이다. 은강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해서도 개발주의가 낳은 불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산업사회의 인간이 기계와 같이 노동하면서 기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환경오염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공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외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나는 쉰 목소리의 여공을 찾아보았다. 아주 못생긴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대부분의 공장 작업자들이 그렇듯이 그 계집아이도 유난히 누런 피부에 평면적인 얼굴, 낮은 코, 튀어 나온 광대뼈, 넓은 어깨, 굵은 팔, 큰 손, 짧은 하반신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열아홉 아니면 스무 살 정도였는데도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천날을 고도에서 함께 보낸다고 해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아이였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p.283)

이처럼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존재의 표상, 난장이를 비롯한 신체적 장애가 상징하는 불구성은 유전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갈등이 신체적 불구 표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난장이'를 비롯한 신체적 불구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기존체제의 인간들로부터 내쫓기고 사회의 완강한 억압에 짓눌려 밑바닥 삶에서 신음해야 하는 소외 인간의 표상[34]이자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명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난쏘공』에는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불구성을 상징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쏙독새와 도도새가 그것이다. 쏙독새는 밤에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낮에 나무에 혹처럼 붙어서 잠을 자는 새이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정상적'인 것들과는 다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 생명으로, 앉은뱅이와 꼽추의 처지를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이 그들의 집을 부수고 난 뒤, 꼽추의 마루로 깔려 있던 나무를 태워 콩을 볶아 먹으며 <쏙독새가 들판에 낮게 나는 소리를 듣는다. 밤에만 활동하는 그 새는 화려한 개발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 소외자인 그들과 닮아있다. 영희가 외계인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주정뱅이'이도 마찬가지이다. 밤에만 활동하는 쏙독새처럼 주정뱅이인 그는 모두가 깨어있는 시간에 술에 취해있고, 모두가 잠이 든 시간에 그 혼자 깨어있다. 그 역시 소외된 타자이며 <그 시간에 깰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쏙독새이다.

지섭은 자신을 '도도새'라 일컫는다. 도도새는 그가 읽는 책 『일만 년 후의 세계』에 <십칠 세기말까지 인도양 모리티우스 섬에 살았던 새다. 그 새는 날개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날개가 퇴화했다. 나중엔 날을 수가 없게 되어 모조리 잡혀 멸종당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생명이다.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도도새를 자신에게 비유해 사회개혁 실천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 펼치지 않은 자신의 게으름, 무지를 탓한다. 대학시절 꿈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싶었던 신애의 남편 현우도 책을 쓰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접고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한 채 퇴화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신애의 동생과 그의 친구도 도도새의 부류이다. 군사독재시절 독재체제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70년대 대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사회는 비이성적, 비인간적인 사회로 '야만'의 공간에 불과했다. 그들 스스로는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질서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괴물 같은 사회의

34)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 『상황의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2, p.65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도도새이다. <마비>되고 있는 현실과 치명적인 질병에 부딪힌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할 수밖에 없다.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친구들은 모두 군대에>갔듯이 사회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젊은이들의 참여도 주춤해지고, 억압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변혁에 대한 감각에 무뎌지고 모순된 사회에 익숙해진다.

> "너 도도새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그 새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았다구. 그래서 퇴화했어. 나중엔 나를 수가 없게 되어 멸종당했어. 나는 그 도도새야. 불쌍하지만 너도 그래. 우린 중요한 것만 골라 배반하는 쓰레기들 속에서 살고 있어." (「우주여행」, p.73)

윤호 역시 은희에게 도도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윤호는 지배계층의 자제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회문제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고 인식한다. 이를 '퇴화'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중요한 것만 골라 배반하는 쓰레기>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 윤호는 도도새의 존재를 주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한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배계층에서 불구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폭력을 자행하며, 지배하는 자, 가진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더 오래 더 많이 권력과 부를 소유하려 하고, 중간 계층마저도 이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포기[35]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불구'는 불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돼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된 '도도새들'은 자본 획득 능력이 탁월한 인간을 사회에 적합한 인물형으로 그리고 있는 개발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불구적 존재이다. 쓰지 않으면 급속하게 퇴화되고 멸종되어 버리는 도도새들은 사회 속 타자들임이 분명하다.

---

35) 이청, 같은 글 pp. 187-188

>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깨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 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 떼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올렸다. 큰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천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깼다. (p. 302)

이원론적 사고에서 본 사회적 타자들은 개발의 가학성에 저항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자연은 수탈과 정복의 대상이자 열등한 영역이다. 자연이 속해있는 영역의 여성, 노동자, 비서구인도 마찬가지로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발주의 사고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타자들에 대한 위협은 단지 그 영역에서의 위협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무서운 부분이다.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만들어 놓은 생태적 위기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엄청난 크기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되어있다.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은강그룹 후계자인 경훈의 꿈속에서는 그들의 숙부를 살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앙상한 뼈와 가시만 남은 가시고기들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만 하게 하는 약>을 먹여도 될 만큼 노동기계에 불과한 노동자들을 가두어 둘 '그물'이 있다. 그러나 피폐한 삶의 극한에 다른 노동자들은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경훈의 살갗을 찢는다. 머레이 북친[36]은 사회의 위계구조는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동기와

수단이 되는 심리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도의 위계구조가 존재하는 사회는 자연을 억압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지배 속성이 무비판적으로 자연에 작용함으로써 자기 지시적인 존재이며 공생과 상호 관계성을 지향하는 생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37]는 것이다. 큰가시고기들의 반란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배한다면, 사회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희는 인간에 대한 지배는 생태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고, 억압적 지배는 곧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Ⅳ. 타자들이 꿈꾸는 에코토피아

1. 자급생존의 생태공동체를 꿈꾸는 타자들

착취적, 식민지적, 가부장적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현실과는 반대되는 즉, 비착취적, 비식민지적, 비가부장적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추구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의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급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작품 속에서 자급적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타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세계관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타자'로 정의된다. 타자에는 여성뿐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남성주체들이 '필요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착취, 종속시킬 수 있도록 개방되고 변형[38]된 존재들이 포함된다. 타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

36)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37) 차봉준, 「에코토피아를 향한 동양적 생태학의 가능성」, 『숭실어문학회』, 2003
38)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같은 책, p.18

거나 혹은 전복의 힘을 기르는 모든 행위는 타자를 억압하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주체는 작품 속에서 '거인'이라 불린다. 타자들과 대립적 위치에서 거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부동산 투기꾼, 악덕 기업주, 부도덕한 관리와 사회지도층들은 작품 속에서 부정적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들은 폭리를 취하거나 기업윤리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며,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한다. 펌프가게 주인이 주민들에게 수도꼭지를 새로 다는 것 대신 우물을 팔 것을 권유하는 이유도 자본주의의 부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는 난장이를 <한 마리의 벌레를 다루듯> 폭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창출을 제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은강 공장의 경영인들과 경훈일가인 은강그룹의 현실인식도 타자들을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 그들은 인간다운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나 화합의 순간을 불편한 것으로 여긴다. 노동자들의 힘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강제 근로, 신체 자유의 구속, 해고, 최저임금,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소자 사용 등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 활동 억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경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잇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전형적인 지배계층의 2세이다. 그는 자신보다 우월한 형들에게 회사를 이어받을 기회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여자아이들과의 잠자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남성 권력의 핵심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여성의 육체를 남성중심의 착취와 축적을 위한 사냥터'[39]로만 여긴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관계가 팽배해 있는 그들의 가부장적 인식은 생명과 그 생명을 담당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능력을 억압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거인'의 이익을 위해 억압당해야 하는 타자들을 대표하는 난장이가 노력을 통해서 거인의 세계로 편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신체적 사회적 불구자인 그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꿈은 서커스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사회로부터 차별, 멸시,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인'이 주인공이

39)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 젠더 · 섹슈얼리티 · 주체』, 여이연, 1999, p.102

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 그만큼 그의 현실은 신분상승을 바랄 수도 사회전복을 꿈꿀 수도 없는 암울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서커스 생활도 그가 이미 살고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 표면적으로 서커스단원들은 그 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서커스 단원이 되는 것에 성공한 꼽추와 앉은뱅이의 결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 역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는 약자로 존재할 뿐이다.

>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 뜰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p.212)

현실을 전복할 힘이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장이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통해 자신의 자식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랑'의 가치가 아니었을지언정 어떠한 관계로부터도 지배당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식들 세대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하고 있다.

난장이는 벽돌 공장의 굴뚝 꼭대기에 서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다 생을 마감

한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만큼이나 비참한 것이었지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신분의 비천함을 끊는 고리이자 아들인 영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된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임을 인식하게 된 영수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계에서 투사로 변모한다. 노동현장에서의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자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고 만다. 현실로부터 느끼는 상실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한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 영수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혁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영수의 저항의식은 처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다. <쌍권총의 사나이>라 불릴 만큼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3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독학으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리되어 버린 두 계층은 절대 이동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력자본[40]은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교차되면서 오히려 구별짓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지배-피지배'의 '착취-비착취'가 당연시 되어버린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된 영수가 선택한 사회변혁의 방식은 살인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모순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와의 대립에서 비롯된 그들의 죽음은 억압하는 주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타자의 전형이다. 특히 영수가 보여주는 사회 변혁 의지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혁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층민들이 현실과의 대립에서 패배하는 동안 작품 속 지배계급은 경쟁과

---

40) 부르디외는 학력자본은 학교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학력 및 그것에 부수되는 다양한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적 가치의 총체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다. :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p.93

독점을 하고 생존을 억압하면서 성장을 한다. 그러나 피지배계층에 대한 이해와 부조리한 세상을 움직이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지배계층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윤호다. 윤호는 율사의 아들로 전형적인 지배계층의 2세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집에 들인 가정교사 지섭과 만나게 되면서 그의 현실인식은 변모하게 된다. 지섭을 통해 난장이네 가족을 접하게 되고, 난장이네 집에서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의 철거 계고장을 본 그날 밤부터 더 이상 입학고사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자 성공하는 삶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학입시에서 일부러 떨어지고, 가진 자들의 자식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학원이나 과외를 거부한다. 부유층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끊임없이 지섭과 난장이 가족을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끼는 인물로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윤호는 상류층으로서 난장이일가와 행복동 빈민가를 보고 못가진자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괴로워하는 소극적 개선자다.[41] 그의 출신은 상류층이지만 그의 머릿속은 항상 난장이의 가족과 <까만 기계들이 차 있는 은강시>와 난장이 큰아들을 도와 줄 생각을 한다. 두 계급 사이 경계에 위치해 있는 그는 조금씩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부유층 2세들이 늘 그렇듯 쉽게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왔던 <흠이 난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호텔을 나서면서 노동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약속과 맹세는 깨어지고,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떠나고 싶어 장식용 책 속에 권총을 숨겨둔 그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경애와 친구들의 모임에서 '환상 고문식'을 거행한다.

> "..... 그래서, 나는 여러분처럼 십대 노동자 이야기를 하며 노동이라는 말, 의무라는 말, 자연적인 권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들을 돕자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감상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난장이 아저

41) 김종회·현대문학연구회, 『한국현대문학 100년, 대표소설 100선 연구2』, 문학수첩, 2006, p. 157

씨의 아들딸과 그 어린 동료들이 겪는 일을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197X년, 한국은 죄인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궤도 회전」 p.166)

윤호는 악덕 고용주가 십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집단의 문제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문제와 사회구조적 모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고문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의식변화만이 아닌 가진 자들 속의 변혁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윤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사랑, 존경, 윤리, 자유, 정의, 이상>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한다. <값싼 기계 취급을 받는> 십대 노동자의 현실과 고용주들의 이기적 삶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공동체로서 화합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너는 몰라."
(중략)
윤호는 너무 몰랐다. 난장이의 큰아들은 은강에 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 수없이 울었다. 협박도 수없이 받고, 폭행도 당했고, 병원에도 입원했었고, 구류까지 살았었다.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었다. 두 눈만 유난히 커 보였다 그의 이상이 그를 괴롭혔다.
"나의 꿈은 단순한 거야."
그가 힘없이 말했다.
"알아."
윤호가 말했다. 윤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는 말했다.
"조합 총회, 대의원 대회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했어. 모든 것이 일방적야. 법대로 되는 게 없어. 내내 지기만 했어. 동료들을 대할 면목도 잃었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고통뿐야. (「기계도시」 p. 191)

그러나 그가 지섭과 같이 자신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피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의식의 변화는 있었으나 적극적 실천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대학교육을 받고 후에 노동운동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지배계층의 2세의 신분이기 때문에 난장이 계층의 2세인 영수의 절박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가진 자의 2세이기 때문에 곧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올 때 조금의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매우 중요한 인물[42]일 수 있다. 미약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계급이 다른 두 영역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화된 질서를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남성 타자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거나 사회변혁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출하면서도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반면, 여성 인물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내포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영희는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현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으킨 인물이다. 어렸을 때부터 잘 우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영희는 오빠인 영수에게 있어서 예쁘고 순수하고 나약해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었고, 그만큼 기타소리와 팬지꽃이 잘 어울리는 존재였다. 그러나 영희는 영원히 그를 영원히 지켜주고 싶어 하는 오빠의 소망과는 달리 자신의 집 입주권을 사들인 부동산 업자, '그'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다. 여자로서 지녀야 할 전통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 그 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입주권을 자신의 순결과 교환하면서까지 집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영희에게 있어서 집은 곧 사랑의 공간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영희에게 있어서 성을 착취당했다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42) 나상미,「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연구」,『목원국어국문학 제4집』, 1996, p.181

집, 즉 공동체의 해체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면제로 '그'를 마취시킨 후 그의 금고에서 아파트 입주권, 돈과 칼을 꺼내 도망친 영희는 철거확인증을 받아 입주 신청을 한 후 주택공사에 들러 신청서를 재출한다. 그곳에서 건강한 모습의 '그'를 보고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낀다. 부동산 업자의 성적 노리개였던 영희는 처음에는 그에게서 벗어날 의지를 갖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그와 나의 차이를 자각하게 되면서 현실의 모순으로 피해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가족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누가 너더러 그런 짓을 하라고 했니? 빨리 일어나 옷을 입어라."
"안 돼요, 엄마."
"우린 성남으로 가기로 했다. 빨리 일어나라."
"안 돼요."
"너의 증조할머니 동생 한 분이 알몸 시체로 수리조합 봇물에 막혀 있었단다. 왜 그랬는지 아니? 주인 서방과 잠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야. 주인 여자가 너의 증조할머니 동생을 사매질해 숨지게 했단다."
"엄마, 전 달라요."
"같아."
"달라요."
"같아."
"달라요!"
"넌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어린 게 그것을 좋아해."
"그래요. 전 좋아해요."
"망할 것!" (「난쏘공」, p.132)

영희의 모성성은 어머니의 그것과는 다르다. 어머니는 여자로서 지녀야 할 전통적인 의무에 대해 영희에게 항상 강조해왔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태도는

가부장적 질서에 적응한 여성상, 어머니상의 대표성을 보여준다. '정숙하지 못한 딸'은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전통적인 여성관을 교육한다. 딸들이 받는 '정숙' 관념은 지역, 계급,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주의는 가부장제, 가부장제 개념틀들, 그리고 억압적인 힘의 지배 관계들을 인정하거나, 영속화시키거나 또는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태도, 편견 또는 행태를 가리킨다.[43] 가부장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지키는데 충실한 역할을 해왔다. 그 어머니들의 딸을 상징하는 영희는 그들과는 달리 가부장사회, 개발중심사회의 폭력성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폭력성이 여성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남성성의 특권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는 어머니의 세대들과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 명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영희의 현실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영수에게 <공장에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해서 큰 회사에 취직>하라고 요구했던 명희는 다방 종업원, 고속버스 안내양, 골프장 캐디 등의 직업을 가졌고, 후에는 임신과 음독자살이라는 비극적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생당하는 여성, 즉 희생당하는 타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영희는 자신의 집 입주권을 사간 부동산 업자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개발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 영희는 노동계층으로 편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노동조합 지부장 영이를 도와 노동운동을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변모하게 된다.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또한 열악하게 그려지고 있으나 영희는 남성들 못지않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다.

그러나 영희를 자급적 관점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인

43) 카렌 J. 워렌, 「에코페미니스트 평화 정치학」, 『London:Routledge』, 1994 ; 「이소영 외, 『자연, 여성, 환경 :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체』, 한신문화사, 2000, p. 219

가 하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희 역시 성의 교환가치에 의한 피해자이고 성을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또 그가 하는 노동운동이 지섭이나 영수가 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것에 그치고 있을 뿐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그러나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으로 좌절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을 보인 영수보다 오히려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작품 속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이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가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을 다룰 때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순결논리를 통해 보고 있다"[44]는 견해처럼 피억압적 위치의 여성으로만 그려진 듯 보이지만 영희의 경우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자급적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급적 관점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작품 속 인물로는 신애를 꼽을 수 있다. 신애는 중산층에 속하기는 하지만 소외된 인물들을 이해하는 양심적인 인물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 신애는 난장이가 일을 하는 동안 그의 부대 속에서 나온 기계와 무쇠조각들을 만져 보았다. 그것은 절단기, 멍키 스페너, 렌치, 드라이버, 해머, 수도꼭지, 펌프 종지굽, 크고 작은 나사, T자관, U자관, 그리고 줄톱 들이었다. 쇠로 된 것들뿐이었다. 모두 난장이를 닮아 보였다. 난장이를 닮은 이 도구들도 난장이가 잠잘 시간에는 벽돌 공장의 굴뚝 밑에 놓여 숨을 죽일 것이다. 난장이네 식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잘 테니까. (중략) 바람이 센 날은 모두 불안해 떨 것이다. 그들이 편안한 잠을 청하기엔 벽돌 공장

44) 김미란, 「조세희 소설의 모성성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71

의 굴뚝이 너무 높다. 동네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오면 난장이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은 여러 종류이다. 난장이에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못된다. (「칼날」, p.54)

신애는 난장이와는 다른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불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작품 속에서 신애와 난장이의 만남은 곧바로 '동질감'으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신애는 난장이가 펌프가게 주인에게 폭행당하는 광경을 보고 난장이를 보호해 주는 행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난장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를 느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죽어, 죽어>를 외치며 사나이의 옆구리를 찌른다. 신애는 작품 속에서 타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진실의 편에 서는 적극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신애는 난장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당하는 난장이를 '끌어안기' 행위를 한다. 그가 빈민과 불구라는 비정상적 위치에 있는 난장이를 옹호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과 관련성이 없는 타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스스로가 그 타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자급적 관점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세희는 신애라는 인물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물신주의와 폭력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공동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애를 타자해방의 힘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인물로 보거나 이원론적 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로 단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난장이가족을 감싸는 신애의 행동에서 모성성이나 공동체 의식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적극적 사회변혁을 위한 노력은 확인할 수 없다. 개발로 인한 타자들의 생존 기반 파괴 현실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그가 변혁을 위한 사고를 행동으로 이을 수 있는 것인가는 작품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신애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층에 속해 있는 윤호나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영희와는 달리 완전한 사회 변혁 의지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신애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위

들은 못가진 자들에 대한 도덕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애는 더 이상 경계를 구분 짓거나 경계의 다른 대상을 착취하거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거부하는 적극적 자급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모성, 공동체, 화합의 힘은 지금은 피억압적 존재들만을 '끌어안기'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은 새로운 균형, 즉 공생관계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생명회복과 치유의 공간

근대성과 개발주의로 인해 피폐된 자연과 불구적 신체 혹은 인간성은 작품 속 인물들의 현실인식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갖게 된 트라우마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통해 드러나거나 순응 혹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배논리에 의해 억압당하는 타자들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 그러나 작가는 타자들이 꿈 꿀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고 있다. 난장이가 달나라를 꿈꾸고, 그의 자식들이 릴리푸트읍을 생각하는 것처럼.

> 그는 달에 세워질 천문대에서 일할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달은 황금색의 별세계였다. 그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지상에서는 시간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약속과 맹세는 깨어지고,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물도 보람 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리고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일 끔찍한 일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다. (「우주여행」, p.67)

지섭이 소개하는 책인 『일만 년 후의 세계』는 난장이와 영호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실의 세계

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이다. 그것이 만들어낸 폐단 속에서 타자들은 좌절과 상실을 겪게 된다. 같은 일도 자본가와 노동자, 부유층과 빈곤층이라는 이분화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현실은 불신의 사회로 전락한다. 암울한 현실과 맞부딪혀 있으면서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엔가 이곳과는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며, 일 만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 어두운 현실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달나라'는 타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어떤 일을 갖든지 간에 행복이 주어지는 달나라는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로, 고통으로 얼룩진 이원화된 세계, 획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이다. 특히 이 책을 읽은 두 인물, 난장이와 윤호의 접촉은 절대 화합이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분리된 계층의 인물들이 공통의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분화된 세계의 화합은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세계와 일치한다.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세계는 개발주의와 자본주의의 폭력성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자급 생존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 인간, 인종이나 국가, 직업, 권력, 문화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에코토피아가 실현되는 세계가 바로 일원론적 사고가 실현되는 세계다. 조세희는 작품의 곳곳에 일원론적 사고에 대한 암시를 던져두고 있다. 국가, 성, 인종, 계급에 대한 고정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경계를 구분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사고 역시 이분화할 수 없다는 진리를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으로 나타내고 있다.

> 면에는 안과 겉이 있다. 예를 들자. 종이는 앞 뒤 양면을 갖고 지구는 내부와 외부를 갖는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끝을 맞붙이면 역시 안과 겉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 갖는 곡면이 된다. 이것이 제군이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뫼비우스의 띠이다. 여기서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을 생각해 보자.(「뫼비우스의 띠」, p.15)

나는 그 병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알았어요."
빠른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벽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예요."
과학자는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대로야."
과학자가 말했다. 그가 '클라인씨의 병을 들고 나를 향해 돌아섰지만 나는 그의 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클라인씨의 병」, p. 262)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적응한 사람들은 '안의 반대말이 밖이고 밖의 반대말이 안'을 당연한 진리로 인식한다. 그러나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을 통해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은 안이 밖이고 밖이 안이다. 작품 속 타자들의 현실인식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즉 자연과 인간, 자본가와 노동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왔던 이원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조세희는 작품 속에서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이다. 뫼비우스의 띠는 안팎이 없는 한 면이며, 클라인씨의 병 역시 안팎이 없고 닫혀 있는 공간이다. 안팎 구분이 없는 세계. 이는 타자들이 꿈꾸는, 혹은 주체와 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꿈꾸어야 할 세상을 상징한다. 영수는 클라인씨의 병을 통해서 갇혀 있는 존재로 전락하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 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공포·불균형·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례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다. 여자 읍장의 키는 일 미터이다.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장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장이들을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p. 195)

은강시의 어려운 삶은 어머니의 가계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영수는 영희가 이야기 해 준 '릴리푸트읍'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달나라'의 세계를 꿈꾸었다면 아들 영수는 '릴리푸트읍'을 꿈꾼다. 그곳은 아버지와 같은 난장이가 사는 세계다. 그곳은 난장이만을 위한 사회이고, 자연에 대한 파괴나 계급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이다. 억압이나 폭력에 의한 파괴당하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아버지의 달나라는 <일 만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영수의 인식에서 보았을 때 릴리푸트읍은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세계이다. 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급, 인종, 성별에 관계하지 않는 일원화된 이 사회는 거인들로부터 해방된 공간으로, 그곳이야말로 아버지가 늘 말하던 '사랑'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린 세상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

린 세상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비도 사랑으로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p.234)

난장이는 죽음이라는 결말을 맺으면서 '사랑의 회복'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개발의 폭력성에 의해 파괴되고 단절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임을 보여준다. 영수와 영호는 처음에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성과 자연 속의 생명이 상호협력에 입각해서 보살핌과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논리는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이상적 세계와 일치한다.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이 상호협력과 사랑을 통해 긴밀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행복과 안녕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다. '실천 의지로서의 사랑'이 실현되는 생태공동체는 '관계성'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자연이 능동적인 주체라는 인식은 '나'라는 존재가 인간/자연물 관계에서 상호 고립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삼라만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45]라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 각각의 자아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화합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타자들이 꿈꾸는 에코토피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45)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 제9권, 2001, p.53

Ⅴ. 결론

지금까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생태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발표된 연작소설 가운데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개발주의 산업화 논리에 의해 핍박받는 자연을 비롯한 타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또한 도시 빈민층과 산업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개발주의가 가져온 생태파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 조세희는 『난쏘공』을 통해 산업사회가 발생시킨 노동자들의 사회적 생존문제와 더불어 개발주의로 인한 타자들의 생존 위기, 환경파괴로 인한 생명 파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점에서 『난쏘공』작품 속 생태인식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에코페미니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난쏘공』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고찰은 현재 시점에서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생태의식을 조명하고 근대성이 가져 온 위기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의 방향을 잡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에코페미니즘 이론이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과 다른 소외 대상, 즉 타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에코페미니즘 이론은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으로 소외되었던 인간 이외의 자연도 타자의 범주에 넣고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중심적 세계관을 회복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배척이 곧 인간이 주체가 됨을 포기하거나 남성중심주의 사고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설정한 것이 곧 남성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생태 의식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적 남성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여성적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인간을 생명의 한 구성체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사회로서의 전환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개발주의의 화려한 면모의 이면에 계층분

화가 가져오는 사회문제나 생태파괴의 비윤리적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근대화와 개발독재, 개발로 이익을 창출한 기업의 자본독점 현실은 인간성 상실은 물론이고, 물질만능주의 인식의 확대와 빈부의 격차, 자연 파괴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개발주의가 불러온 불구적 사회구조는 파괴를 일삼는 비윤리적 사고방식의 확산을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과 자연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불구적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본고에서 살펴 본 인간과 자연의 파괴성과 불구성은 자연과 인간, 주체와 타자, 지배와 피지배로 이분화된 현실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현실인식의 불구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파괴된 공간, 불구적 신체, 자연물 등의 표상을 통해 작가 조세희는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박탈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타자들이 자연 자원의 무계획한 남용과 거대 자본의 논리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개발주의가 만들어 낸 폭력성은 세계의 분화를 촉발하며 계급분화는 문론 생태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작품 속 타자들은 이분화된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내게 되며 그들이 그리는 이상세계는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지닌 세계관, 공생과 조화의 세계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난쏘공』 작품 속 타자들이 자신을 타자화한 대상, 즉 주체까지 포용하는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지만, 7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 그리고 힘 제일주의 풍조에서 억압받는 왜소한 타자들의 모습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그들의 극복과 실천 의지를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경쟁 논리에 휩쓸려 생태적 인식이 전무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적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학작품 분석은 이론적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없다. 에코페미니즘, 더 넓게는 사회생태학과 심층생태학까지, 생태의식을 담은 이론들로의 분석은 모두 실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차봉준은 생태주의적 관점 속에서 문학이 담당

해야 할 역할이 “문제를 심화시킨 인간 인식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색해야 할 사유의 지향 등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근원적 물음과 대답[46]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같은 이유로 조세희의 『난쏘공』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은 생태주의 문학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는 작품과 최근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론의 만남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공동체적 생태계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이다.

46) 차봉준, 「소설의 심미성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중인문학연구』, 2008, p.99

참고문헌

<기본자료>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0

<단행본>

강상대, 『문학과 비평의 사유』,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6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2001
김욱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종회 · 현대문학연구회, 『한국현대문학 100년, 대표소설 100선 연구2』, 문학수첩, 2006
레스터 W. 밀브래스, 『지속가능한 사회 -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이해』, 이태건 외 역, 인간사랑, 2001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외 역, 창작과비평, 2001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박홍규 외 역, 민음사, 1998
신덕룡, 『환경 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화사, 2000
신명직, 『불가능한 전복에의 꿈- <난쏘공>의 환상성 연구』, 시인사, 2002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 젠더 · 섹슈얼리티 · 주체』, 여이연, 1999,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이소영 외, 『자연, 여성, 환경 :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체』, 한신문화사, 2000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출판사, 2008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홍성태,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2007

<논문>

곽경숙,「산업화 초기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양상 고찰」,『韓國言語文學 제58집』, 2004
김병익,「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문학과 지성』, 1982, 봄
김용학,「<모던 타임즈>에 나타난 채플린의 사회학」,『연세』, 1991, 여름
김욱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영미문학 페미니즘』, 1997
김임미,「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4
김정숙,「텍스트 새롭게 읽기 : 대립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문예시학』, 1933
김종성,「韓國 現代小說의 生態意識 硏究 : 趙世熙·金源一·韓勝源을 中心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4
김정숙,「텍스트 새롭게 읽기 : 대립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문예시학』, 1993
김종철,「산업화와 문학」,『창작과 비평』, 1980, 봄
김진기,「196,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의식 연구」,『겨레어문학 제26집』, 2000
나상미,「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연구」,『목원국어국문학 제4집』, 1996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영미문학페미니즘』제9권, 2001
신은영,「조세희 소설의 환상성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3
우찬제,「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리얼리티 효과」,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1집』, 2003, 겨울

이계림,「김선우 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7
이귀우,「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제43권』, 2001
이명원,「낙원구 행복동과 용산참사 - 조세희가 상기시킨 정치적 비평」,『문화과학』, 2009
이윤숙, 「다시 짜는 세상 -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에코페미니즘의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3
이청,「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불구적 신체 표상 연구」,『우리어문연구 제27집』, 2006
이효정,「조세희 소설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5
제임스 오코너,「국제적 상호의존성과 생태학적 사회주의」,『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1990
조남현,「70년대 소설의 몇 갈래」,『한국현대문학사』, 1989
조주현,「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한국여성학 제24권』, 2008
주인,「조세희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차봉준,「에코토피아를 향한 동양적 생태학의 가능성」, 숭실어문학회, 2003
「조세희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 2007
「소설의 심미성과 생태학적 상상력」,『한중인문학연구』, 2008
홍성암,「한국 생태문학 연구」,『한민족문화연구 제17집』, 2005